

## 해외전력정보

### 쿠웨이트, 에너지 절약을 위한 5대 지침

쿠웨이트 수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 & Water)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5대 지침을 발표했다.

5대 지침은 ▲첫째,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고 ▲둘째, 신도시 쿨링 시스템 및 전력 협력생산 도입 ▲셋째, 전력생산 및 송배전 시스템의 효율성 프로그램 도입 ▲넷째, 신·구 빌딩 에너지 절약 코드 및 태양광 시스템 의무화 ▲다섯째, 전력 사용량 선 지급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 소비패턴 개선 등이다.

수전력부는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전력을 소비한다면 2030년까지 피크 시 전력 사용량이 30,000MW에 이르며, 하루 700,000배럴의 오일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5대 지침을 준수할 경우 전력을 10,000MW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전력부는 밝혔다.

출처 : MEED(2013. 6. 2)

### 투르크메니스탄, 전력 프로젝트 발주 확대 전망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기 전력개발계획안(Concept of development of power industry in the country for 2013~2020)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전력 프로젝트 발주가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력개발계획안 수립을 주도한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와 전략계획 경제개발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는 계획안 승인으로, 2020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2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선 1단계인 2013~2016년 기간 중에는 Akhal, Lebap 및 Mary 지역에 가스터빈 발전소 6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Seydi, Balkanabad 및 Abadan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는 개보수를 진행하며 고압 송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7~2020년 기간에는 발전소 6기를 건설하고, 기존 가스터빈 발전소도 열병합 발전소로 전환하여 전력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10개의 발전소에 설치된 22기의 터빈이 가동 중으로 지난 2007년 이후 발전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발전소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까지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전력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전력수출도 현재의 연간 27억kWh 보다 5배 가량이 늘어나 외화수입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름에 따라, 관심기업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유망 신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주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출처 : 해외건설협회



### 이집트, 사우디와 1,320km 전력망 건설 사업 추진 동향

최근 이집트와 사우디는 양국 간 전력망 건설 사업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사업규모는 16억 달러로 이집트, 사우디 양국이 각각 40%와 60%를 부담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4~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전력 사용 피크타임이 다른 양국 간의 사정을 활용하여 전력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우디의 전력 피크타임은 정오부터 오후 중반까지인 반면, 이집트는 일몰 후에 전력 소비가 가장 많다.

전력망 건설 사업이 완공되면, 양국은 3,000MW 규모의 전력 공유가 가능해지고, 각각 13%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은 총 1320km 길이로 사우디 820km, 이집트 480km이며, 사우디국영전력회사(Saudi Electricity Co.)와 이집트전력지주회사(Egyptian Electric Holding Co.)가 공동으로 20km의 해저케이블 설치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사우디 전력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GCC 국가를 포함하여 아랍 14개국의 전력망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집트와 사우디는 이 사업에 대해 수년간 논의했으며 2011년, 국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집트 '아랍의 봄' 시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한편 이집트는 최근 전력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올 여름 전력 소비량은 일 평균 29,500M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